

우리 사랑을 위해



〈송 원 희〉

- 작가 약력 -

서울출생
 1955년 동국대학교 영문과 수료
 1955년 「화사」, 「식민지」로 등단
 주요작품
 「비틀거리는 中間」,
 「고독의 문」 「大地의 꿈」,
 「목마른 땅」등의 장편 외에
 단편 다수.

여년 때보다 좀 늦게 귀가했다.

「오늘 어쩐 일이에요. 일찍 들어온다고

하고서는…」

「우연히 누굴 만나게 돼서 좀 늦었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참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었어.」

「몇년만에 만난 사람인데요?」

「한 이십년 되나……」

「20년만에 만난 사람이라면 원수라도 만났겠네요. 뭐,」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식
 의 대꾸였다.

이 여편네가…… 도대체…… 이렇게 감이 무디다
 니…… 나이를 먹어갈수록 뻣뻣해기가 북어대가리같
 고 단단해기가 대추나무 방망이 같으니…… 그러니
 어디 재미가 있어야지.

「저녁은요?」

「먹었어.」

「그럼 빨리 잡시다. 피곤해서 죽겠어요. 작은 애 과
 외공부 걸으로 쫓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아



이... 졸려...

아내는 놀리지게 하품을 하더니 깔아놓은 이부자리에 벌렁 누워버렸다.

「나 오늘 누구 만났는지 알어?」

「20년만에 만난 친구라고 했잖아요. 나도 아는 사람이예요?」

아내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목석처럼 물었다.

「연옥이 만났어. 연옥이... 당신 연옥이 알지?」

「연옥이... 연옥이... 어디서 듣던 이름같은 한데...」

아내는 겨우 눈을 뜨고 어슴프레한 기억을 더듬었다.

...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여자는 자기 라이벌의 이름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예전에 아내는 나와 연옥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어쩔수 없어서 되도록 간결하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눈빛이 묘하게 되고 입이 일그러지더니 사진을 찢어버린 일이 있었다.

「으응... 박연옥... 전에 당신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던 여자...」

그제사 생각이 난 모양이었다.

「맞아, 바로 그 연옥이야. 연옥이를 오늘 만났다고 우연히.」

나는 우연히라는 말에 악센트를 두었다.

「반가웠겠군요.」

아내는 누운 채 별로 표정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여자들은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옛여자를 만났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서 토라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질투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남편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내의 반응에는 그런 종류의 변화가 조금도 없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 흘렀는데도 연옥이는 예전과 같았어.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더 품위가 있어진 것 같더군.」

「연옥이란 여자, 당신한테 시집오지 않길 잘했네.」

「그게 무슨 소리아?」

「당신하고 결혼했다면 한참 고생했을테니 나처럼 나이 보다도 더 늙었을 거 아니예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찍 늙기도 하고 언제까지 젊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내는 돌아누워 버렸다. 조금 있더니 아내는 나보다 먼저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아내를 자각해서 무드를 잡아볼까 하다가 싹 잡쳐버렸다. 잠든 아내는 가볍게 코까지 골았다. 나는 옛애인을 만났다고 해도 질투는 커녕 천하태평으로 잠들어버린 아내의 무딘 성격에 감탄해야 할지 그만큼 나를 믿고 있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연옥..... 그녀는 60% 정도는 나와 결혼에 골인할 뻔한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하잘 것 없는 일로 영원히 이별을 하고 만 것이었다. 그날 우리는 둘이서 늘 가던 다방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다방을 막 나서려는데 연옥이를 보고 반색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 나는 앞서서 가고 연옥이는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길었다. 나는 지루했고 나중에는 기다리다 지쳤다. 결국 화가 나서 말도 없이 혼자 가버렸다. 이튿날 연옥이는 전화로 무슨 남자가 그러냐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화를 내었다. 나는 나대로 무슨 여자가 길가에 남자를 세워놓고 다른 남자와 깨가 쏟아지게 반시간이나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소리쳤다. 그러자 연옥이는 반시간이 아니라 이십분 정도였고, 그 남자는 친구의 애인이라고 했다. 나는 더욱 화가 났다. 친구의 애인하고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으나,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남의 애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느냐는 등의 말을 퍼부었다. 나중말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심했다. 연옥은 남자가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해도 그렇게 웅졸한 줄은 몰랐다. 이렇게 유치한 남자가 어디 또 있겠느냐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어쩌나 화가 났는지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도 너같이 아무 남자하고나 시시덕거리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진짜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좋아 …, 어디 두고 보자… 그쪽에서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며칠이 지나고 서서히 화가 가라앉자 나는 연옥이의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그런데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 지나자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몇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도 연옥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꽤 씹하게 생각되어 그만두어 버렸다. 두주일이 지난 후 할 수 없이 연옥이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자리에 없어서 직접연결이 되지 않았다. 나는 메모를 보고 연옥이가 전화를 해주길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명동에서 친구들 하고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연옥이가 어떤 남자와 다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즈음에 나는 어른들의 성화로 맞선을 보았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20년만에 그 연옥이를 만난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웃었다.

「바쁘지 않으면 차 한 잔 할까?」

「응, 좋아」

연옥이도 나를 스스럼없이 대했다.

「결혼했지?」

나는 바보같은 질문을 했다.

「그럼, 아이가 둘이야.」

「행복해?... 행복하겠지?」

「응, 행복해.」

잠시동안 말이 끊어졌다.

「그런데 우리 그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멍청히 물었다. 서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마음

먹었던 사이가 하루 아침에 한번의 다툼으로 끝나버린 것이 웬지 석연치 않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뭐... 그때 먼저 나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보나 그런 말을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어디 진심인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지?」

「그럼, 왜 곧 전화를 안 했어?」

「연옥이가 나한테 웅졸하고 유치하다고 했잖아.」

「나도 화가 나서 그랬지.」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만 일어납시다.」

「잘 가.」

「응, 잘 가.」

옛 애인과의 재회는 이것으로 끝났다.

며칠 후 내가 귀가해 보니 아내가 집에 없었다.

「어머니?」



「엄마 친구 만나서 저녁먹고 들어오신다고 전화왔어요..」

아내는 늦게 들어왔다.

「부순 친구인데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와..」

「... 옛 애인...」

「뭐?」

「옛날 애인을 만났다고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

「부순 무역회사의 부장이래요. 근사한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차로 바래다줄테니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들어서 저녁을 먹었던 말이야..」

「당신도 며칠 전에 옛 애인을 만났나면서요. 나는 옛 애인 만나면 안 되나요. 그 사람이 나보고 하나도 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내는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웃기지 말어. 옛날 사진 찾아서 다시 봐. 그 친구는 눈이 뺏나!」

나는 불쾌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당신도 연옥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연옥이도 변했어. 옛모습은 하나도 없었어. 살이 찌고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 했어..」

「그런데 지난번엔 왜 그렇게 말했지요?」

아내는 대들듯한 기세였다.

「남자는 예의상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당신한테 의례적인 말을 한 거라구. 물 마시고 속 차려!」

나는 통쾌한 기분으로 반격했다.

「흥! 당신은 내가 미워져서 기분이 좋은 거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 마누라는 나혼자 봐서 예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린다구..」

나는 아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말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해주는 것이 더 좋아요..」

아내는 약간 심통이 난 듯했다.

「그러나 저러나 당신은 왜 그 옛날 애인하고 결혼까지 가지 못했지?」

「내가 바보가 되어서 그랬지요 뭐. 그 사람의 어머니가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러났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거 무시하고 할 수도 있을텐데.....」

「나하고 결혼하려 그랬지 뭐..」

「나는 가끔 하구 많은 남자들 중에 왜 당신을 만나서 살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기지 뭐..」

나는 불을 켰다.

아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달덩이처럼 보였다. 나는 연옥이를 잊었고 아내는 그 부장인가 하는 사람을 잊었다. 나는 앞으로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두번쯤은 전에 친숙했던 옛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